

# 나주시 다도면,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 행사' 성료

### 다도반점, 어르신 초청 효 나눔 행사



다도반점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 다도면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도반점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관내 사회단체장 등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헌신적인 자녀 양육과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강경주 씨에게 '장한 어버이상' 표창패를 수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축하공연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음식

을 나누며 이웃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가 열린 다도반점(대표 노완기)은 지역 사회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도반점은 지난 40여 년간 한결 같이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과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 어버이날 행사 역시 장소와 중식을 후원하며 어르신 공경에 앞장섰다.

지역민들은 오랜 기간 지역에 나눔을 실천해 온 다도반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철희 다도면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2026 생활문화축제 <월·담> 개최

화순 동북면, 열무김치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26 생활문화축제 <월·담>'(이하 월담2026)을 오는 5월 16일(토)부터 6월 7일(일)까지, 매주 토·일, 다미대예술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월담2026'은 <월담개화(月潭開花): 일상을 넘어 피어나는 문화>를 슬로건으로 담양의 로컬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지역민은 물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자화상 방명록' 이벤트와 골목 사이 숨은 행운 '월담 나비 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담양 상설시장의 먹거리까지 더해져 '월담2026'에서의 하루를 온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동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희대, 민간위원 박석희)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담은 계절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김치를 담그며 이웃을 향한 정성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됐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 읍·면 순회 '찾아가는 체험 환경교실' 성료



읍면 순회 찾아가는 체험 환경교실 사진 /영광군청 제공

또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을 쉽게 전달하며 주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체험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더 실감할 수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 환경교실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교육을 확대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의 출발점인 만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참여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전반에 친환경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영광군은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체험 환경교실'을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총 290명의 군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행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효과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기후위기와 지역 환경 변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 이론교육과 함께, 북극곰 지구비누 만들기, 설거지바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인 큰잔치' 장성군에서 열린다

###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14~15일 개최...2000여 명 참가

장성군이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인들의 잔치인 '제21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을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전남 22개 시·군 소속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와 임원 2097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축전에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탁구 등 9개 종목의 시합이 펼쳐진다.

개회식은 14일 오전 10시 장성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리며, 식전행사와 축하공연, 공식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관 주변에선 종합(관광)안내소, 농·특산물 홍보부스, 전통차 체험 등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강상기 어르신(92세, 곡성군)과 소프트테니스 종목에 참가하는 박종열 어르신(90세, 장성군) 등 11명의 선수에게는 건강상도 수여한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을 독려하는 '스포츠7330 실천 다짐 캠페인'도 갖는다.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사진 /장성군 제공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어르신대축전이 전남권 시니어 스포츠 활성화와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장성군은 올해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9월 12~14일),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5~16일)의 축포를 연달아 쏜다.

장성군은 올해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전남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잇따라 개최한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